

# 한미약품, 타이플루 생산 적극추진

정지석 부사장, 프로세스 기술력 갖춰 최적 ... 글로벌 제약기업 지향

한미약품은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제7회 증권선물거래소 상장법인 국제 기업설명회(IR)에서 타이플루 생산의지를 확고히 했다.

정지석 한미약품 부사장은 11월2일 서울 하얏트호텔 리전시룸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그룹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뒤 "Roche와 공동 생산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타미플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권 발동이나 재사용 특허에 대비해 이미 연구를 해왔으며, 타이플루 생산허가가 나면 단기간에 생산이 가능할 정도로 생산 프로세스 기술력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 Roche가 구체적으로 제안한 내용이 없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만큼 원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지석 부사장은 "3/4분기에 창사 이래 최대 영업실적을 기록하는 등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이 국내 1위 제약기업으로 인정했으며, 이제는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미약품은 선진국 대형 제약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완제품 수출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정지석 부사장은 "2005년에 이스라엘 대형 제약기업과 파트너십을 맺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FDA 승인과 같은 걸림돌로부터 한층 자유롭게 완제품을 수출할 것이며, 현재 13-15%에 머물고 있는 수출비중도 2008년 공장 완공 이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화학저널 2005/11/04>